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트럼프 당선 소식에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미국 증시 리뷰

6일(화) 미국 증시는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이 확정됨에 따라 감세, 규제완화 등 정책 수혜 기대감이 반영되며 위험 선호 심리가 큰 폭 개선된 영향으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3.57%, 나스닥 +2.95%, S&P500 +2.53%)

'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당선을 확정.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인단 226명 확보에 그쳤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을 넘는 30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였음.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었던 7개 경합주(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네바다,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예상보다 이르게 당선이 기정사실화되었음.

이 날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2석을 차지하며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음. 기존 상원은 민주당(47명)과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4명) 등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공화당이 기존 49석에서 추가로 3석을 확보하며 4년 만에 과반을 점하게 됨. 또한, 하원 선거에서도 현재 민주당 194석 vs 공화당 210석으로 중간 집계됨에 따라 과반인 218석 차지에 공화당이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

공화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양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시장은 완연하게 트럼프 트레이드를 반영하였음.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선까지 근접한 가운데 달러지수도 105pt를 상회하고 비트코인은 9.8% 폭등. 한편, 친기업 성향인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이 날 미국 3대 지수 모두 2% 이상 급등세를 보였고, 감세 및 규제완화 수혜 강도가 높은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은 5.9%대 상승.

주요 종목별 등락률을 살펴보면, M7 종목 중 애플(-0.33%), 메타(-0.07%)는 하락한 반면 마이크로소프트(+2.1%), 알파벳(+3.99%), 아마존(+3.8%), 테슬라(+14.75%), 엔비디아(+4.03%)는 상승. 업종별로 살펴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활발해지며 금융(+6.2%), 산업재(+3.9%), 경기소비재(+3.6%)는 상승한 반면, 부동산(-2.6%), 필수소비재(-1.6%), 유ти리티(-1.0%)는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정된 가운데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 확보와 더불어 하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레드스윙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진 상황. 이에 따라, 트럼프는 향후 2년간 법 제정, 개정, 폐기를 통해 이전에 유세 기간 동안 본인이 언급하였던 공약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상태. 가령, IRA 폐기 혹은 축소, 메디케어법 개정, 법인세 인하, 파리기후 협약 탈퇴 등을 법안 발의 및 의결을 통해 공약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는 것.

물론, 트럼프가 실제로 포괄적 감세안, 보편관세 적용, 규제 완화 등 다수의 공격적인 정책들을 현실화시킬지 여부는 향후 내각 구성과 더불어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금융시장은 트럼프 당선 직후 이를 긍정하게 반영하는 모습. 이 날만 미 증시의 3대지수(다우 +3.57%, 나스닥 +2.95%, S&P500 +2.53%)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5.8%대 급등. 트럼프의 감세 및 규제 철폐 공약과 더불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친기업적 정책 추진 기대감이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를 극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

다만, 트럼프 신행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에 따른 채권 수급 부담과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요인도 동시에 반영되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5%선까지 근접하였고 달러지수도 105pt를 상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결국 주식시장의 벌류에이션 확장을 저해시키는 요인. 또한, 트럼프가 주장하는 대규모 감세, 관세 인상, 저금리, 재정지출 확대라는 모순된 정책 조합은 정책적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단기적으로 글로벌 증시 전반에 걸쳐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트럼프 수혜주 중심의 차별화 장세도 일정 기간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정치와 관련된 가격 변수 움직임이 진정되고 난 이후 주식시장은 재차 대선 불확실성 해소를 반영하며 매크로와 펀더멘털에 초점이 이동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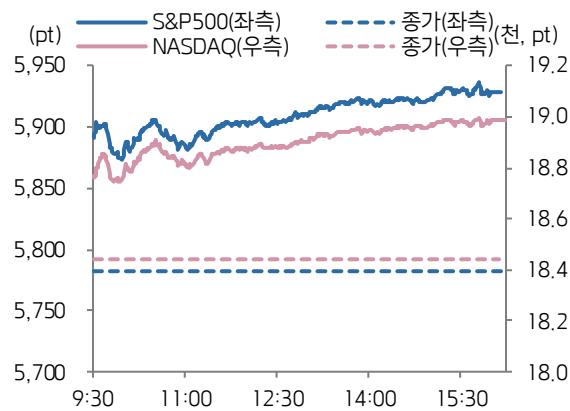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미 대선 개표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방산, 금융 등 트럼프 수혜주의 반등과 2차전지, 신재생주의 급락 등 트럼프 트레이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하락 마감 (코스피 -0.52%, 코스닥 -1.13%)

금일 국내 증시는 전일 아시아 증시 대비 과도하게 반영하였던 트럼프 트레이드 낙폭을 일부 만회하며 되돌림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다만,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관련 센티먼트가 진정되기 전까지 보편 관세 등의 우려를 반영하며 국내 수출업체의 상방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

미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마무리된 가운데 증시는 이제 내일 새벽에 예정된 FOMC와 8일 전인대로 점차 민감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 먼저, 11월 FOMC는 25bp 금리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한 향후 금리 인하 경로 및 양적 긴축 속도에 대한 언급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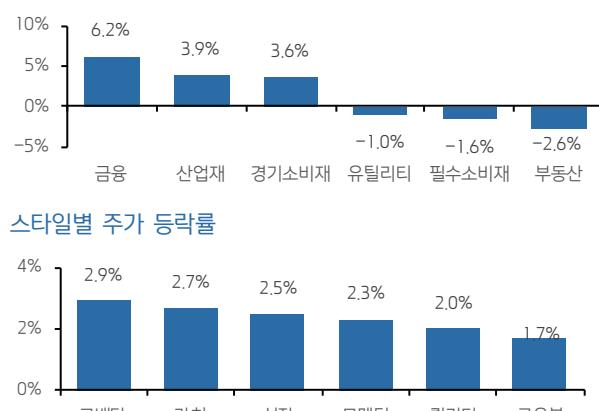
한편, 중국산 제품에 고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8일 예정된 전인대 상무위가 승인하는 부양책 규모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을지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 중국 당국의 내수 부양을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 발표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국내 중국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도 기대감을 반영할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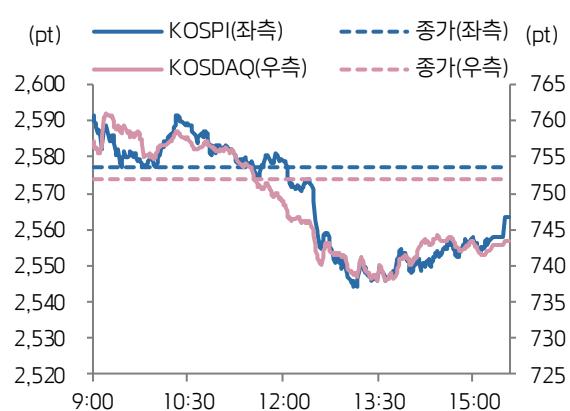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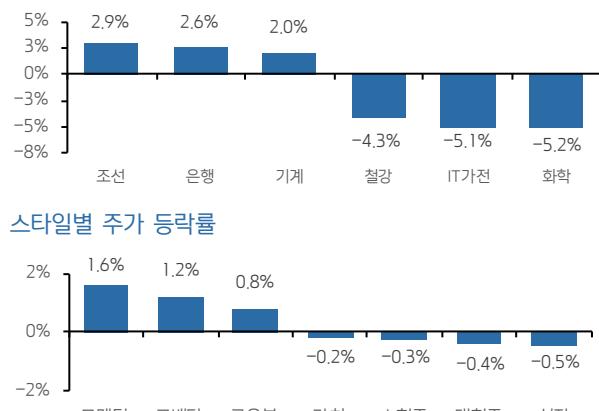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22.72	-0.33%	+15.68%	GM	55.05	+2.51%	+53.26%
마이크로소프트	420.12	+2.1%	+11.72%	일라이릴리	776.38	-3.68%	+33.19%
알파벳	176.51	+3.99%	+26.36%	월마트	83.44	-0.29%	+58.78%
메타	572.05	-0.07%	+61.61%	JP모건	247.06	+11.54%	+45.24%
아마존	207.09	+3.8%	+36.3%	엑손모빌	121.00	+1.71%	+21.02%
테슬라	288.53	+14.75%	+16.12%	세브론	157.72	+2.81%	+5.74%
엔비디아	145.56	+4.03%	+193.92%	제너럴일렉트릭	83.44	-0.3%	+58.8%
브로드컴	179.55	+3.25%	+60.85%	캐터필러	416.88	+8.74%	+41%
AMD	145.10	+2.43%	-1.57%	보잉	147.16	-2.54%	-43.54%
마이크론	111.83	+6.01%	+31.04%	넥스트에라	74.52	-5.3%	+22.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2,563.51	-0.52%	-3.46%	USD/KRW	1,399.30	+1.45%	+8.64%	
코스피200	340.61	-0.25%	-4.85%	달러 지수	105.13	+1.65%	+3.75%	
코스닥	743.31	-1.13%	-14.22%	EUR/USD	1.07	-1.82%	-2.79%	
코스닥150	1,276.63	-1.36%	-8.38%	USD/CNH	7.20	+1.44%	+1.1%	
S&P500	5,929.04	+2.53%	+24.3%	USD/JPY	154.60	+1.97%	+9.61%	
NASDAQ	18,983.46	+2.95%	+26.4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43,729.93	+3.57%	+16.03%	국고채 3년	2.956	+3.9bp	-18.9bp	
VIX	16.35	-20.2%	+31.33%	국고채 10년	3.137	+6.2bp	-3.8bp	
러셀2000	2,392.92	+5.84%	+18.05%	미국 국채 2년	4.270	+9.3bp	+2bp	
필라. 반도체	5,215.57	+3.12%	+24.91%	미국 국채 10년	4.433	+16.3bp	+55.4bp	
다우 운송	17,462.35	+5.37%	+9.83%	미국 국채 30년	4.609	+17.4bp	+58bp	
상해종합	3,383.81	-0.09%	+13.74%	독일 국채 10년	2.405	-2bp	+38.1bp	
항셍 H	7,363.47	-2.56%	+27.65%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80,378.13	+1.13%	+11.27%	WTI	71.69	-0.42%	+1.98%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4.92	-0.81%	-2.75%
Eurostoxx50	4,800.63	-1.43%	+6.17%	금	2,676.30	-2.67%	+23.9%	
MSCI 전세계 지수	843.18	+0.99%	+15.98%	은	31.33	-4.41%	+30.08%	
MSCI DM 지수	3,692.96	+1.01%	+16.53%	구리	424.60	-5.12%	+9.14%	
MSCI EM 지수	1,139.11	+0.82%	+11.27%	BDI	1,405.00	+2.26%	-32.9%	
MSCI 한국 ETF	59.37	-2.86%	-9.4%	옥수수	426.50	+1.91%	-15.29%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574.25	+0.31%	-14.16%
비트코인	76,042.17	+9.95%	+78.89%	대두	1,004.75	+0.3%	-19.8%	
이더리움	2,694.86	+11.57%	+18.08%	커피	248.05	-0.54%	+30.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6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